

# 資源 Nationalism의 現況과 展望

吳 萬 植\*

## <目 次>

- I. 序
- II. 資源 Nationalism의 背景
- III. 資源 Nationalism의 現況
- IV. 資源 Nationalism의 展望

## I. 序

資源 Nationalism의 起源은 1911年の「멕시코」(Mexico)革命에까지 소급하여 올라 갈 수 있다. 憲法中에 地下資源은 國家의 所有物이다라고 하는 思想을 規定한 「멕시코」는 1938年에는 國營石油會社를 設立하였으며 그후 資源 Nationalism은 兩世界大戰사이에서는 潛在된 狀態에 있었으나 亞細亞, 亞弗利加에서 植民地가 繼續 獨立한 50~60年代에 들어와서 急速히 높아지게 되었다. 「資源 Nationalism의 確實한 定義는 없으나 한마디로 表現하면 資源의 恒久主權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天然資源의 保有, 開發, 利用에 對해서는 資源保有國이 絕對的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sup>(1)</sup> 이와같은 運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OPEC(石油輸出國機構)이나 CIPEC(銅輸出國政府間協議會) 등이다. 그동안 石油의 경우는 世界의 資源은 歐美系國際大資本(Major)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銅의 경우도 國際大資本이 南美各地의 鑛山을 長期間 繼續 左右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메이저」(Major)支配에 對해서 資源保有國들은 自國의 主權을 前面에 내세우면서 支配權의 奪還에 나섰던 것이다. 最初에는 自國內에서 開發事業을 推進시키고 있는 國際大資本에 高率의 課稅를 賦課한다든지 經營參加를 求하는 程度이었으나 60年代에 들어와서 開發途上國의 發言權이 漸次로 높아짐에 따라서 外國企業의 接受나 國有化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되었다.

石油의 例를 보면 1973年の 中東戰爭을 境界로해서 支配權이 「메이저」로부터 OPEC로 完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教授.

(1) 日本經濟新聞社編, 資源 100問 100答 p.194, 1978.

흔히 넘어 왔다.銅에서는「칠레」(Chile)가 60年代中葉以後「케네콧트」,「아나콘다」(美國系國際大資本)所有의 鑛山의 51%를 接受하고 어떤 것은 國有化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움직임에 刺戟되어서 CIPEC의 一員인「페루」(Peru)도 外資會社를 接受한 外에「자마이카」(Jamaica),「자이레」(Jaire)에서도 이것과 類似한 現象이 繼續 發生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資源 Nationalism을 開發途上國의 協調, 團結로서 達成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다. 開發途上國의 資源恒久主權을 決議한 73年の 非同盟國首腦會議의「Algeria 宣言」, 74年の 國聯資源總會의 新國際經濟秩序의 確立宣言, 그리고 1次產品問題로서 步調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77個國 Group 등은 모두 이 部類에 屬하는 것이다. 또 國聯海洋法會議의 中心議題가 되어 있는 經濟水域 200海里 水域內의 海底資源의 保有權, 開發權을 沿岸國에 獨占의으로 賦與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資源 Nationalism은 開發途上國의 專賣特許는 아니다. 先進國에서도 同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國家가 있고 非鐵金屬의 分野만을 보아도 濠洲는 民族資本強化策을 推進시키고 있으며「카나다」(Canada)도 鑛業 Licence의 交付에 있어서는 國內企業과 外國企業사이에 相異한 條件을 부치는 案을 檢討하고 있다.

## II. 資源 Nationalism의 背景

「아랍」(Arab)產油國들이 石油를 가지고 資源 Nationalism에 크게 成功한 以後에 資源 Nationalism은 世界經濟에 커다란 波紋을 던지게 되었다. 그후 資源保有國들은 資源輸出國機構를 통한다든지 또는 資源과 關聯된 組織의 形成을 통해서 서로 經濟的 結束을 強化하여 共通的 資源政策을 取하게 되었으며 그 結果 資源을 둘러싼 諸般協商의 主導權은 漸次 資源保有國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資源 Nationalism의 擡頭로 國際關係는 從前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으며 于先 資源을 從前처럼 싼 값으로 無制限 사들일 수 없게 됨에 따라 世界經濟는 커다란 試練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資源 Nationalism은 大略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

첫째 從來는 資源收入增大要請을 中心으로 하던 것이 資源産業을 國有化하거나 또는 資本, 經營參加의 擴大를 期하게끔 되었다는 點.

둘째 國內進出 外國企業들에게 自國開發을 위한 投資增大를 要請하는 한편 課稅의 對象이 되는 價格決定에 直接關與한다는 點.

셋째 資源開發에 있어 自國에서의 加工度를 높이려 하고 있다는 點.

셋째 資源 Nationalism은 開發途上國間의 協調와 團結을 通해서 達成하려고 한다는 點 등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資源 Nationalism의 根據 및 背景은 어떠한가.

「멕시코」(Mexico)는 1917년에 「地下資源은 國家의 所有物이다」라고 하는 資源主權思想을 憲法에 規定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思想이 國際的으로 認定을 받게 된 것은 1962年 12月 UN總會에서 「天然資源의 恒久主權」에 對한 宣言이 採擇된 以後부터이다.

同宣言의 內容은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 資源主權은 資源保有國의 國家發展과 國民福祉向上을 위해 行使되어야 한다.

둘째 資源의 探查, 開發 및 處分은 國民을 위한 方向으로 行해져야 한다.

셋째 導入된 外資는 國內法 및 國際法의 法律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開發途上國들은 同宣言에 滿足치 않고 決議內容을 더욱 發展시켰다. 1966年 第21次 UN總會에서는

첫째 資源의 開發, 販賣는 오로지 資源保有國이 自力으로 行한다.

둘째 外國資本은 受入國의 規制에 順應하여야 하며 勞動, 經營, 技術에 있어 現地要員訓練을 強化하여야 한다.

셋째 資源保有國은 外資에 依한 開發利潤에 있어 保有國持分을 自由로이 擴大할 權利를 갖는다는 등의 決議를 行하였다.

이와 같은 思想的 根據에 바탕을 두고 資源保有國들은 先進國의 經濟的 從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漸次로 資源 Nationalism을 強化하여 나가고 있으며 1961年 9月 OPEC이 結成된 것을 始作으로 하여 資源 Nationalism의 물결은 全世界的으로 波及되어 나가게 되었다.

### III. 資源 Nationalism의 現況

#### 1. 石油輸出國機構(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베네수엘라」(Venezuela)의 大統領 「가르로스 안도레스 베레스」는 OPEC의 設立은 「先進國이 經濟的 抑壓의 武器로서 우리들의 原料에 대해서 지나친 低價格政策을 行使한 것이 直接의 原因이었다.」<sup>(2)</sup>고 主張한 바 있다. 그러나 實際的으로 石油輸出國政府間의 協力에 拍車를 加한 힘은 보다 複雜多樣한 點이 있으며 그 中에는 石油輸出諸國의 實際의 石油輸

(2) 1974년 4월의 第6次 國聯特別總會 「原料와 開發에 關한 特別總會」에 있어서의 「제네랄·포드」 美大統領의 演說에 대한 回答, Japan Times, July 5, 1975, p.1의 「베네수엘라特集」 附錄에 再錄.

出價格의 侵蝕을 防止할 수가 없고 또 民間의 國際的 寡占의 存在와 超國籍企業이 確保하고 있었던 不當한 採掘利權制度에 對해서 產油國政府間에 不滿이 增大하고 있었던 것도 그의 하나의 原因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採掘利權의 條件中에서 特記할만한 것은 公示價格의 設定과 變更, 投資計劃과 輸出量의 決定, 擴大한 採掘區域의 未探查部分의 拋棄 등과 같은 重要案件을 採掘利權을 가지고 있는 企業이 自由로 實施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主要石油輸出國政府가 集團組織創設의 決定을 決心하게 된 動機는 1959年 2月の 石油價格의 引下에 繼續해서 石油會社들이 1960年 8月に 公示價格의 一方的 引下를 斷行한 것이었다. 그러나 產油國政府가 事前에 協議하여 줄 것을 要請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石油會社가 一方的으로 公示價格을 引下한 것은 이미 多年間 地位를 確立하여 온 會社들과 新參會社間의 競爭이 全般的으로 增大하여 온 것에 對應하는 措置인 것 같다. 이와 같은 競爭은 主要超國籍企業의 垂直統合化된 經路에 依하지 않고 去來되고 그뿐만 아니라 1959年~1960年 사이의 世界의 原油去來量의 約 5~10%를 占하고 있었던 原油의 公開市場價格을 惡化시켰다. 1959~1960年の 公示價格引下의 衝擊은 石油의 需要가 相對的으로 非彈力的이기 때문에 附隨的으로 바렐(Barrel)當 約 13.5「센트」의 產油國政府收入의 低下를 가져왔다.」<sup>(3)</sup>

如斯히 하여 1960年 9月에는 開發途上石油輸出國政府(아랍 3個國—이라크(Iraq), 쿠웨이트(Kuwait) 및 사우디·아라비아(Saudi-Arabia)와 非아랍 2個國(이란(Iran)과 「베네수엘라」(Venezuela))이 石油生産國과 消費國의 利益 및 石油生産國의 安定된 所得과 石油消費國에 對한 「에너지」源의 能率的, 經濟的 및 規則的인 供給과 石油産業에 投資하고 있는 諸國의 投下資本에 對한 公正한 利益을 確保할 必要를 適正히 考慮하면서 다른 方法도 使用하나 주로 生産規制에 依해서 價格의 安定을 지킬 수 있는 組織을 研究하고 制定하는 것을 當初의 主要目標로 내세우면서 各國政府間 및 各地域間의 組織으로서 OPEC을 設立하였다.

그런데 1975年の 下半期에는 OPEC加盟國은 13個國에 達하였다. 그러나 그 中 過半數는 「아랍」 7個國이었고 加盟國은 4大陸에 걸쳐 있었다. 即 6個國은 亞細亞(이란(Iran) 「이라크」(Iraq), 「쿠웨이트」(Kuwait), 「카타르」(Qatar), 「사우디·아라비아」(Saudi-Arabia) 및 「아랍 에미레이트」(Arab-Emirate)) 4個國은 亞弗利加(「알제리아」(Algeria), 「리비아」(Libia), 「나이지리아」(Nigeria) 및 가봉(Gabon)) 2個國은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

(3) A. A. Kubbah: OPEC, 1974, p.14-15 參考.

「베네수엘라」(Venezuela)와 「에쿠아도르」(Equador) 그리고 1個國은 大洋州(「인도네시아」(Indonesia))에 所在하고 있다.

「OPEC을 創設한 諸國의 主要關心事中的 하나는 結實을 가져오지 않는 結果에 陷入할 可能性이 있는 單一의 目標에 그의 機能을 制限하지 않으므로서 이 組織의 繼續을 確保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國際石油產業에 關한 모든 政策問題에 對한 繼續의인 情報交換, 協議 및 協力の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그들의 關心事는 組織의 關聯性과 有用性과를 維持하기 위해서 몇가지의 目標을 追求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目標을 添加하고 이미 낡은 目標을 새로운 目標로 바꾸는 것이었다.

基本的인 共通目標中에서 特히 顯著한 것은 서로 關係있는 두가지 目標이다. 卽 하나는 自國의 鑛物資源에 對한 보다 큰 支配權을 主張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自國의 石油와 天然 氣의 生産加工으로부터 보다 큰 利益을 獲得하는 것이다.

OPEC의 規定에 依하면 加盟國은 大量의 原油의 純輸出을 行하는 國家만에 限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 點에 關해서는 一日當 不過 2萬 乃至 5萬「배럴」(Barrel)의 輸出밖에 하지 않는 國家는 加盟의 資格이 없다는 聲明以外에는 正確한 說明은 行하여 지고 있지 않다.<sup>(4)</sup>

그뿐만 아니라 加盟申請國은 正式加盟國의 4分の 3에 該當하는 많은 國家들의 承認을 얻지 않으면 안되며 OPEC을 創設한 諸國은 모두 拒否權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65年 4月에는 새로 加盟을 申請한 國家에 對해서 다시 資格條件이 追加되었다. 그것은 새로 加盟을 申請한 國家들은 加盟諸國의 利害關係와 基本的으로 類似한 利害關係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條件이었다. 이것은 重要한 石油輸出國인 蘇聯이 加入할 것에 對한 「사우디·아라비아」(Saudi-Arabia)의 念慮를 緩和할 것을 意圖하는 것이었다.

準加盟國은 投票權을 除外하고는 正式加盟國이 가지는 모든 權利와 特權을 享受하고 그 나라의 石油生産量의 增大가 그것을 正當化할 때 正式的인 加盟權을 獲得할 수가 있다.

「OPEC의 組織構造는 單純하다. OPEC에는 네가지의 主要組織體가 있다. 卽 協議會, 理事會, 經濟委員會 및 事務局이 그것이다. 協議會는 OPEC의 最高機關이다. 協議會는 一般 政策의 決定과 그 政策實施를 위한 適當한 手段을 생각해 내는 責任을 가지고 있다. 協議會는 各加盟國으로부터 派遣되는 閣僚級의 各 1名의 代表者로 構成되고 全員一致 및 平等投票權의 原則에 따라서 機能한다. 定例會議은 年 2回 開催되고 中 1회는 普通 「빈」(Vienna)에 있는 OPEC本部에서, 다른 1회는 加盟國의 首都에서 開催된다. 臨時會議은 各加盟國의 要請에 依해서 開催된다. 代表團의 團長 또는 그의 代理者에 依한 諮問會議은 協

(4) OPEC: Weekly Bulletin Review of the Press, Jan. 5, 1973, p.9.

議會의 議長의 要請에 依해서 恒常 開催할 수 있다. 決議는 前回 開催된 協議會에 依해서 別途 承認되고 있지 않는 限 다음 協議會에 依해서 承認되지 않으면 안된다.

各國으로부터 1名씩의 代表者로 構成되는 理事會는 協議會의 諸決議를 實施하고 豫算을 編成해서 協議會의 承認을 求하고 또 事務局의 運營을 監督할 責任이 있다. 理事의 任期는 2年으로서 理事會는 적어도 年 2回 開催된다. 經濟委員會는 各國으로부터 한사람씩 加盟國을 代表하는 專門家로 構成된다. 經濟委員會의 機能은 事務局의 經濟部와의 緊密한 協力下에 定期的(普通 4分期 베이스)으로 價格이나 其他의 財務變動 등의 重要經濟問題를 分析하는 것이다.

事務局은 主로 調查部署나 또 各會議의 編成者로서 뿐만 아니라 諸問題가 討議되고 意見의 一致를 보는 場所로서 機能한다. 事務局은 때때로 立法이나 規定作成의 準備도 委託되어 왔다. 事務局의 一貫된 關心事는 「그룹」內의 主要生産國의 利害關係를 調和시키는 데 있다.

OPEC의 本部는 처음에는 「제네바」(Geneva)에 있었으나(1961~1965年) 後에 「빈」(Vienna)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오스트리아」(Austria) 當局이 많은 特權과 免稅를 認定하였기 때문이다.<sup>(5)</sup>

이와 같이 歐羅巴에 本部가 設置되어 있으므로 事務局은 世界最大의 石油輸入地域에 있어서의 消費市場의 變動을 詳細히 調査할 수가 있다. 事務局은 管理部, 經濟部, 法務部, 情報部 및 技術部の 5個部門을 가지고 있으며 職員數는 比較的 少數로서 25名 乃至 30名の 專門家が 일을 하고 있다.

「事務總長은 法的權限이 賦與된 OPEC의 代表者이고 또 事務局의 首席任員이다. 그리고 事務總長은 加盟國中 어떤 國籍을 가진 者가 아니면 안된다. 1970년까지는 事務總長은 輪番制로 任命되었으며 法定任期는 一年이었으나 때로는 延長되는 경우도 있었다.

1970년에는 加盟國政府는 事務總長選任을 위한 高度의 專門的 基準이 設定되고 있지 않고 또 任期도 一年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第1級の 資格을 具備한 有能한 人材를 採用할 수 있는 魅力이 一般의으로 없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協議會는 1970年 6월에 事務總長의 任期를 3年으로 延長함과 同時에 同期間의 再任을 認定하는 데에 同意하였다. 따라서 1971年 以後 事務總長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資格을 必要로 하게 되었다. 即 最低年令 35歲, 妥當한 大學의 學位 및 15年間의 關聯經驗이 그것이다. 또 任命에는 全加盟國의 一致된 承認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合意가 얻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5) A. A. Kubbah: OPEC, 1974, p.14-15 參考.

事務總長の地位는 加盟國이 所要의 資格을 지키면서 2年間씩 輪番制로 하기로 했다.

事實上 1970年以後에는 事務總長の地位는 OPEC諸國사이에서 2年間씩 輪番制가 되어 왔다. 이 輪番制의 原則에 依해서 各加盟國政府는 事務局에 있어서의 Leadership의 役割을 分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事務總長の地位에 高度의 資格을 設定하고 一年間의 任期를 延長한 것은 最高指導者의 質을 높임으로써 OPEC를 強化시키려고 하는 重要한 措置이었다.

그러나 OPEC事務局은 아직 몇가지의 制度的 制限에 直面하고 있다. 例를 들면 職級の 保有期間에 對한 Career制度의 缺如 등이 이것에 該當한다. 萬一 Career制度가 있으면 職員들은 安心하고 國家의 영향력에 抵抗할 수가 있을 것이다. 事務局職員의 任期는 最高 4年이다. 그러나 實際의 任期는 平均 4年未滿으로 職員은 一般的으로 自國政府로부터 獨立된 立場을 取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過去 事務總長の地位에 있었던 사람들은 率直하게 「事務局은 指導의 專門인 職員의 非永續性이란 重大한 缺點을 가지고 있다.」<sup>(6)</sup>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國民으로서의 感情은 반드시 職業의 保障에 依해서 克服되는 것은 아니고 또 恒久的인 事務局은 官僚의이 되거나 또는 怠慢한 事務局으로 轉化할 可能性이 있다. 따라서 長短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中期的인 任期로 하는 便이 보다 많은 能率에 貢獻할 것이다.

OPEC의 制度的 發展은 加盟國間의 重大한 意見의 差異에 依해서 阻害되어 왔다. 協議會의 決議의 몇가지는 實施되지 못한 것이 있다. 例를 들면 1972年 3月 11~12日의 緊急共同基金을 設定하려고 한 決議는 實施되지 못하였다. 이 基金의 目的은 財政的 困難에 陷入할런지 모르는 加盟國을 돕는데 있었다.

그러나 1970年代 中葉頃에는 이와 같은 基金의 創設은 벌써 過去와 같은 最高優先順位의 必要性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의 主要한 原因은 OPEC諸國의 所得이 1973~1975年間에 一般的으로 急上昇한데 있었다. 따라서 OPEC의 關心은 其他 開發途上國의 利益을 위한 共同開發基金의 結成에 向하고 있었다.

OPEC諸國의 協力の 成果는 當事者들이 表明한 目標의 面에서 判斷할 수 있다. 主要石油輸出國政府의 目標은 OPEC의 法規에 具體的으로 表現되어 있고 그것을 要約하면 長期的인 利益을 最大化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과 別途로 또 OPEC의 成果를 類似의 機關의 成果와 比較함으로써 評價할 수도 있

(6) F. Rouhani: A History of O.P.E.C., 1971, p. 126.

다. 아랍石油輸出國機構(OAPEC)가 管理體制의 機關으로서 때때로 利用된다. 이 「아랍」의 域內組織은 1968年 1월에 「쿠웨이트」(Kuwait), 「리비아」(Libia) 및 「사우디·아라비아」(Saudi-Arabia)에 依해서 創設되었다. 1974년까지에 加盟國은 10個國으로 增加하고 아랍 7個國 即 「알제리」(Algeria), 「바레인」(Bahrain), 「이집트」(Egypt), 「이라크」(Iraq), 「카타르」(Qatar), 「시리아」(Syria) 및 「아랍 에미레이트」(Arab-Emirate)가 加盟하였다. OAPEC의 成果는 主로 油槽船隊, 乾득크 石油投資會社 및 石油探査·썬어비스會社와 같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各種合併企業의 主唱者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었다.<sup>(7)</sup>

이것에 比해서 OPEC는 主로 價格決定 및 課稅基準의 決定에 關與하는 政策調整그룹이며 그의 活動範圍는 諸地域에 걸쳐 있다. 따라서 이들 두 그룹은 兩者擇一의인 것이 아니고 相互補完的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即 OPEC는 基本的으로 國際的인 價格決定政策에 關한 그룹이고 OAPEC는 地域的인 共同事業計劃에 關한 그룹이다.

OPEC의 評價는 또 코스트(Cost)와 利益이라는 點으로부터도 行할 수가 있다. 直接費總額으로서는 OPEC加盟國政府는 OPEC이 活動을 行하기 위한 資金으로서 每年 約 120萬弗을 寄附하여 왔고 其他의 追加的 支出은 OPEC關係의 會議에 參加한 各政府에 依해서 負擔되고 있다. OPEC이 招來한 利益에 對해서는 OPEC加盟國의 國民總生産, 國際收支 및 政府收入에 對한 寄與를 생각하여 보면 좋을 것이다. 政府收入은 여러가지 手段을 通해서 增大하여 왔다. 即 採掘利權所有會社에 依한 鑛區使用料의 個別支拂, 公示價格 또는 稅金關聯價格의 引上, 稅率의 引上 및 最近에 行하여 지고 있는 產油國政府에 依한 契約 期間滿了 日前的 主要採掘利權의 接收 또는 그것에로의 參加 등이다.

「OPEC의 石油收入에 對해서는 1960~ 70年間に 있어서는 1바렐(Balme)當 約 75「센트」乃至 1弗이었다.」<sup>(8)</sup>

그것이 1970年代의 前半이 되어서 急激하게 增大하고 1973년에는 1바렐(Barrel)當 約 2.6弗이 되고 1974년에는 1바렐當 9.7弗로 上昇하였다.

1973~1974年の OPEC의 石油價格과 稅率의 急激한 變動은 石油輸出諸國에는 커다란 富와 石油諸國에는 重大한 調整問題를 招來한 것은 明白하다.

어떤 新聞은 如何한 國家도 市場이 負擔할 수 있는 것보다 低廉하게 自國製品을 販賣하지 않으면 양될 責任은 없다는 것을 認定하였으나 石油輸出國과 小麥輸出國(主로 美國)이

(7) OAPEC: A Brief Report o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 of the Organization, 1968~1973, July 12, 1974, p. 2-4 參考.

(8) 1960~1972年間的 數字는 다음 資料에 詳細하게 記載되어 있다. Zuhayr Mikdashi; Cooperation Among oil Exporting Count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rab Countries, 1974, p. 5.



顧客에 對한 影響을 거의 顧慮함이 없이 지나치게 急激하게 그리고 큰 變化를 發生시켰다고 非難하였다.

OPEC諸國은 價格引上을 徐徐히 行한 便이 보다 賢明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와 같이 하면 主要石油輸入諸國의 集團의 對抗運動을 惹起시키거나 代替에너지源을 開發하거나 節約措置를 講究하는 등 美國政府의 強한 反應을 回避할 수 있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OPEC諸國이, 1960年에서 1972年까지의 期間에 걸쳐서 石油價格을 徐徐히 引上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었다. 그의 主要理由는 石油輸出價格의 決定이 產油國과 超國籍企業間의 交渉의 結果의 產物이었기 때문이다. 確實히 OPEC加盟諸國은 이 期間에는 「價格分野에 있어서 成功하지는 못하였다.」<sup>(9)</sup> 그러나 國有化 또는 參加의 交渉에 成功함으로써 自國의 天然資源에 對한 支配權을 徐徐히 主張하는데 多大한 努力을 傾注하였다.

그러나 勿論 이들 諸國의 歲入增加의 어떤 部分이 OPEC의 集團의 努力에 依하는 것인가 또는 스스로의 發意에 依한 各國政府의 個別的인 行動에 依하는 것인가 또는 市況의 好轉에 依하는 것인가를 確認하는 것은 容易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加盟國의 政府가 OPEC 內部에서 各國의 政策과 行動을 調整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의 增收의 一部는 實現할 수 없고 또 實現時期도 이와 같이 빨리 되지 못하였을 것은 確實하다.

加盟諸國의 政策을 統一하고 統一石油法典을 編纂하며 OPEC高等裁判所를 創設하려고 하는 OPEC의 企圖가 아직 結實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企圖는 OPEC協議會가 加盟國의 炭化水素法에 包含되어야 하는 10個의 原則을 勸告하였으며 1968年 6월에 이미 開始되고 있었던 것이다. 再言할 必要없이 이들의 原則은 各國의 意見의 一致를 얻기 위해서 廣範한 意見의 差異點을 受容할 意圖下에 極히 普遍的인 말로써 기초되어 있다.

「一部 OPEC諸國의 主要採掘利權에 產油國政府機關과 超國籍企業이 共同으로 參加하고 있는 것도 역시 OPEC의 業績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參加方式은 100%의 國有化를 指向하고 있는 超國家主義的인 要求에 對한 別途의 構想이라 할 수 있다. 이 Approach는 合併會社가 經營者와 政府와의 關係에 있어서의 相互依存과 安定化의 手段 그리고 外國民資本의 投資와 Know-how에 對한 組織과 天然資源과 輸出市場의 開發의 基礎를 提供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其他의 產油國은 外國의 強力한 經濟의 利益이 國內에 存在하는 것을 政治的으로 좋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大部分의 超國籍石油企業은 產油國의 政府機關으로부터의 競爭 또는 그들 機關과

(9) OPEC: Weekly Bulletin Review of the Press, Nov. 16, 1973, p.5-7 參考.

의 共同參加란 새로운 條件에 順應하고 있다.

그리고 產油國의 歲入增加 및 產油國內의 石油資源에 對한 支配權의 擴大外에 加盟國과 그의 國有會社에 對해서 情報의 經驗의 交換의 場所와 共同生産計劃이나 共同國際마아케팅의 機會를 提供한 것도 OPEC의 業績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共同生産과 共同마아케팅은 加盟諸國의 諸條件, 優先順位 및 展望의 差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世界最大의 石油埋藏量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Saudi-Arabia)는 生産制限은 적은 便이 좋고 또 價格은 比較的 낮은 便이 좋다는 意見인데 反해서 다른 OPEC諸國은 自國의 埋藏量에는 限度가 있는 것에 留意하여 生産량을 制限하고 價格을 높이는 便을 좋아하고 있다. 이들의 意見의 差異는 目的과 行動의 統一을 維持하는 것에 對한 큰 試練임을 實證하고 있다.<sup>(10)</sup> 事實 1974년에는 多額의 財政剩餘金의 도움을 받아서 大部分의 OPEC諸國은 價格維持를 위해서 各國 獨自的으로 生産量이나 生産伸長率을 引下하였다.

또 OPEC諸國에 生産抑制를 促進할 可能性이 있는 其他의 動機로서는 限定된 石油資源을 節約하고 短期의 歲入을 最大化하고 싶은 欲求, 減價하고 있는 財政剩餘보다도 地下의 石油을 選好하는 氣分 및 石油價格에 인플레이指數를 붙이고 싶어 하는 念願 등일 것이다. 一般的으로 低廉한 價格으로 石油을 販賣하고 싶어 하는 國家는 OPEC의 加盟國中에는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價格의 軟化에도 不拘하고 OPEC加盟國이 生産을 擴大하는 것을 助長하는 要因으로서 生覺되는 것은 높은 石油價格이 石油의 長期需要를 低下시켜 世界의 經濟活動을 鈍化시킴으로써 自國의 利益을 損傷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判斷, 다른 生産國을 犠牲해서라도 自國의 石油收入을 最大化시키려고 하는 OPEC加盟 各國의 欲求 및 工業國과 協力하고 싶다는 念願이다.

그 뿐만 아니라 加盟國에 對한 OPEC의 公헌은 國際狀況의 分析, 助言의 提供 및 石油産業의 技術의 經濟的 側面에 있어서의 國民의 訓練 등의 領域에 있어서 特히 顯著하다. OPEC事務局은 또 合議의 組織者로서 意見의 交換 및 交渉者의 選擇의 場所로서 特히 情報의 蒐集交換의 場所로서, 有用한 機能을 다하여 왔다. 定期的으로 供給되는 詳細하고 正確한 그리고 漸次的으로 包括적으로 되어온 情報은 OPEC各國政府의 首腦가 妥當한 政策이나 規則의 策定을 行하는 것을 돕고 있다.

「OPEC는 또 加盟國의 價格 即 商品의 交易條件을 安定化하는 데 努力하여 왔다. 그의

(10) B. Abdessalam: Arab Oil and Gas, July 1, 1974, p. 23-28.

最初の 試圖는 1971年 2月 14日 OPEC와 超國籍石油企業과의 사이에 締結된 테헤란協定에 具體化되었다. 交易條件의 安定化는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는 것과 같이 極히 粗雜한 方法으로 行하여졌다. 그것은 石油의 稅包含輸出價格의 水準을 每年 2.5%의 世界인플레이率 程度만큼 引上한다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었다.<sup>(11)</sup> 이와 같은 인플레이率은 不充分한 것이 實證되고 이 協定은 2年間 實施된 後 廢止되었다.

OPEC는 또 1次產品을 輸出하는 開發途上國 사이에서 生産國聯合을 結成하는 것을 促進하였다. OPEC는 政府와 企業의 關係에 對한 機構의 存在方式을 導入하였으며 이와 같은 形態는 다른 資源富裕途上國에 依해서도 模倣되어 오고 있다.

「OPEC의 強點은 本質的으로는 政治的 同盟으로부터 發生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強點의 大部分은 OPEC主要生産國이 가지는 市場統率力과 石油產業이 가지는 特徵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特히 방대한 埋藏量을 가지는 「사우디·아라비아」(Saudi-Araiba)는 加盟國間의 步調의 設定이나 條件의 主唱을 行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寡占의 主導者와 거의 같은 方法으로 個個의 OPEC加盟國이 나타내는 움직임을 封鎖할 수도 있다. OPEC를 價格決定權과 輸出統制權을 具備한 世界的인 「카르텔」(Cartel)로 바꾸려고 한 試圖는 只今까지 몇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生産統制計劃은 加盟國間의 各種의 意見의 差異, 潛在的인 脫退의 두려움 및 新規加盟國의 發生에 依해서 定着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970年 以後 OPEC는 主로 消費國과 消費國企業의 政策立案者나 著述者들에 依해서 「카르텔」이라고 불리워져 왔다. 이것은 主로 OPEC諸國이 自國의 輸出價格은 大幅的으로 引上할 수 있다는 데 起因한다.<sup>(12)</sup>

그러나 우리들은 OPEC內部에 있어서의 價格競爭의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萬一 先進國에 依해서 採用되고 있는 輸出카르텔의 定義를 適用한다면 OPEC는 「카르텔」(Cartel)로서의 「테스트」에는 合格하지 못한다. 輸出카르텔이라는 것은 價格에 關한 確固한 協定만이 아니고 生産統制라든가, 市場割當 등 根幹이 되는 分野에 對해서 關聯協定을 包含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輸出카르텔은 違反을 團束하기 위해서 違反者를 罰하기 위해서 構成 멤버(Member)의 活動을 監視하는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OPEC加盟諸國政府는 이와 같은 카르텔機能의 어떤 것도 다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石油輸出價格의 協定은 嚴格히 말하면 自發的인 것이며 運用面에서 制裁도 處罰도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 協定은 OPEC 加盟國이 合理的이라고 看倣되는 範圍內에서 價格의 設定과 變更을 各 加盟國政府의 裁量에

(11) Z. Mikdash: The Community of Oil Exporting Countries, 1972, p. 165.

(12) D.R. Bohi & M. Russell: U.S. Energy Policy, 1975, p. 6 參考.

말기고 있다. OPEC의 決議를 詳細하게 檢討하면 OPEC에는 超國家的 權限은 없고 그의 決議는 行動을 위한 單純한 指針에 不過한 것을 알 수 있다. 加盟國은 그의 意思決定力을 어떠한 中央機關에도 委任하고 있지 않다. 加盟諸國은 自國의 主權을 지키고 行動의 自由야말로 至上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위에 價格과 그의 關聯事項에 關係되는 OPEC의 決議는 全加盟國에 依해서 반드시 지켜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事實 OPEC加盟國은 카르텔規律을 지킬 수가 없었다. OPEC의 創始者中의 한 사람이 말한 것과 같이 加盟國 政府는 主權者이고 OPEC에 對한 義務를 如何한 方法에 依해서도 強制할 수 없음을 銘心하여야 한다. OPEC에 對한 義務는 如何한 경우에도 보다 많이 道義的 義務의 性質을 띠고 있다.

1945年 以前에는 主要工業國과 이들 國家들의 超國籍企業은 經濟的 또는 政治·軍事的 行動에 依해서 그들의 意思를 資源이 豊富한 途上國에 強要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第2次 世界大戰以後에는 主要強大國들은 從來보다 自己自身들을 一層 自制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最近 30年間에 開發途上國의 交渉力은 劇的으로 強하게 되었으며 特히 石油輸出國은 自國의 天然資源을 現在까지 보다 一層 自由로이 開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國際環境을 利用하여 從來보다도 一層 좋은 條件을 求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은 利益의 增大에 努力하는 OPEC諸國을 西歐石油消費諸國의 雇傭者聯盟에 對決하는 勞動組合에 비유하고 있다.

그 結果 一部の 石油輸出國政府는 主로 1973年 以後 相當한 規模의 外貨準備를 蓄積하여 왔다. 中立的인 立場의 觀察者는 「이들 國家들은 이 準備金을 極히 慎重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의 通貨의 利益을 正當히 考慮하면서 管理하여 왔다.」<sup>(13)</sup>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見解는 石油輸出國政府가 自國의 外貨資産을 使用하는 것에 依해서 不公正한 經濟的 乃至 政治的 利益을 獲得할 수 있다고 한다. 石油輸出國政府가 그와 같은 目的을 위해서 多額의 外貨準備를 蓄積할 수 있다고 假定하면 이들 諸國은 物價가 上昇하고 貨幣價値가 下落하는 時期에 自國資産의 流動性을 保有하는데 있어서 相當한 財務的 危險에 直面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先進國政府는 產油國의 資産을 凍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의 自由로운 移動을 妨害할 수도 있다. 「美國의 財務長官 「조지·슐츠」는 國際通貨基金의 第20次委員會에서 그와 같은 制限을 設定할 것을 提案한 바 있다.」<sup>(14)</sup>

先進國은 資金의 凍結以外에 다른 重要한 經濟的 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 先進國은 石油

(13) R. Maulding: A View from the Middle East, July, 1973, p. 63.

(14) Financial Times, July 10 and 11, 1973 參考.

輸出國이 必要로 하는 商品의 價格을 引上하거나 社會經濟의 發展에 꼭 必要한 資源을 提供하지 않거나 또는 其他의 各種의 差別的 乃至 微罰的 制限을 課할 수가 있다. 先進國은 長期的으로는 競合資源 또는 競合에너지形態의 開發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助成함으로써 그들의 石油輸出國에로의 依存을 減少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短期的으로는 危機의 時期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大量의 戰略的 備蓄을 保有하거나 貯藏設備를 設置할 수도 있다.

그리고 石油價格을 引下하기 위해서 石油輸入國의 政策立案者나 著述家들은 主要消費諸國의 政府가 團結해서 行動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어떤 著名한 學者는 消費國의 利益을 생각해서 生産國으로부터 投資撤收을 行하게끔 超國籍企業에 強要할 것을 提唱하였다. 그는 그 結果 石油輸出國間에는 輸出量 增大를 위한 價格引下壓力이 不可避하게 強化될 것이라고 論하고 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떤 OPEC加盟國政府도 價格引下 없이는 美國內에서의 販賣를 期待할 수 없겠끔 하여 OPEC內部的 競爭을 誘發하겠끔 西歐諸國政府에 勸告하였다. 이것은 世界에서 最大의 石油의 埋藏量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石油輸出의 量的 擴大에 熱心인 것을 假定한 主張인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의 高官은, 「사우디」는 自國經濟의 需要以上으로 自國의 石油資源의 枯渴을 加速化시키는 것을 自制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理由는 인플레이션과 主要通貨의 價值下落의 時期에 있어서는 石油輸出國政府가 外國의 金融機關에 外貨準備를 預託하는 것보다는 石油資源을 地中에 保有하는 것에 贊成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기 때문이다.

石油輸入工業國의 政策立案者의 大部分은 OPEC石油價格을 引下시키기 위해서 OPEC에 對抗하는 機關을 設立하는 것을 暗暗裡에 獎勵하고 있다. 이들 諸國의 行動의 手段이 國際에너지機關(IEA)이었으나 이 機關에 參加하고 있는 것은 OECD加盟國에 限定되고 있다. 「IEA」의 目標은 緊急用備蓄의 設定, 供給量의 配分 및 國內消費의 縮小에 依해서 深刻한 供給障害에 對處하는 能力을 開發하고 또 節約과 新에너지供給이란 領域에서의 統合된 努力을 통해서 輸入石油에 對한 그룹의 依存度를 減少시키는 것이다. OPEC와는 달리 「IEA」는 強力한 執行事務局과 加重投票制度를 確立하고 있다. 各加盟國은 세가지의 一般加重值外에 石油消費量에 立脚하는 附加加重值를 가지고 있다. 美國은 1975年 下半期에 있어서 最高의 合計加重值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全體의 約 30%를 占하고 있었다. 大部分의 決定은 60%의 多數票에 依해서 내려진다. 「IEA」의 設立外에 OECD의 主要工業國은 2,500萬弗의 相互保險基金의 創設에 合意하였다. 그의 目的은 國際收支의 赤字 또는 OPEC 諸國으로부터 流入한 資金의 移動, 引出 또는 削減에 依해서 가장 심각한 打擊을 받은 「IEA」加

盟國에 對해서 借款과 保證을 提供하려는 것이다。」<sup>(15)</sup>

OPEC의 힘에 對抗하는 다른 接近方法은 內部的인 意見의 不一致를 助長하는 것이다. 이것은 超國籍企業의 支援下에 OPEC諸國이 서로 反目하게끔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OPEC 內部에 競爭을 惹起시키기 위해서 石油收入을 渴望하는 一加盟國으로부터의 採掘量을 削減하는 것에 依해서 行하여 진다. 「아랍 에미레이트」(Arab Emirate)의 加盟國의 하나인 「아부다비」(Abudaby)는 超國籍企業이 1975年初에 突然 採掘量을 3分の 2까지도 減少시킨 일이 있었다. 「아랍 에미레이트」의 大統領은 超國籍企業이 「아랍 에미레이트」의 石油輸出과 財政收入의 安定을 喪失시킴으로써 OPEC의 解體를 企圖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이들 會社의 目的은 우리들을 分裂시켜서 OPEC로부터 離脫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아랍 에미레이트」의 石油·鑛物資源相은 또 超國籍石油會社가 1975년에 「아랍 에미레이트」政府에 對해서 同政府가 「아부다비」에 있어서의 이들 會社의 共同採掘利權을 國有化할 것을 要求한 것을 暴露하였다. 超國籍企業의 숨은 動機는 그들이 가지는 少數購買獨占의 支配力을 行使해서 「아부다비」에서 生産되는 原油를 보다 廉價로 輸入하는 것이었다.

제 4의 接近方法은 軍事的 侵略의 위협이었다. 1974年初 美國의 高官은 목을 죄는 것과 같은 行動(價格引上 또는 生産削減)이 取하여진 경우에는 軍事行動이 最後의 手段이 될 것이라는 것을 比추었다. 이에 對해서 OPEC諸國의 主權者나 最高首腦者는 1975年 3月 初旬에 開催된 第1次頂上會談에서 이것에 反撥하였으며 그들은 自己들을 反目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消費國의 如何한 團結에도 反撥하고 그와 같은 團結 또는 OPEC加盟國을 敵으로 하는 其他의 手段에 依해서 經濟的 乃至 軍事的 侵略을 企圖하는 如何한 計劃 또는 戰略도 糾彈한다고 하였으며 이들 首腦者들은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統一戰線으로 그와 같은 위협에 對抗하기 위해서 即刻 有效한 手段을 取하는 것을 全員一致로서 合意하였다. 先進諸國이 進歩, 安寧, 平和, 破壞手段의 大部分을 保有하고 있다고 해도 侵略이 行하여지는 경우에는 即時 有效한 手段을 取할 것을 規定하였다.

그러나 工業國의 一部の 代辯者는 OPEC을 弱體化시키고 OPEC의 所謂 카르텔(Cartel)型의 價格決定力을 破壞하는 것을 적어도 願하고 있다. 그러나 OPEC가 언젠가는 解體할 것이라고 믿고 또는 願하고 있는 사람들에 對해서 「사우디」의 石油鑛物資源相은 「이것은 希望的 觀測 乃至는 盲目的 態度이다.」<sup>(16)</sup> 라고 反論하였다.

OPEC는 內外的 壓力에 견딜 수 있는 充分한 團結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며 各種의 意

(15) 前美國國務長官 헨리·킨의 演說, "International Response to Energy Problem," Feb. 3, 1975 參考.

(16) Washington Star, April 19, 1975.

見의 差異나 不一致에도 不拘하고 OPEC의 首腦者는 團結하지 않는 限 個別的 힘밖에는 發揮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 2. 銅輸出國政府間協議會(CIPEC: Conseil Intergovernmental des Pays Exportateurs de Cuivre)

「銅輸出國政府間協議會(CIPEC)는 產銅國과 多國籍企業間의 激烈한 투쟁 가운데 1967年 6月 「칠레」(Chile), 「페루」(Peru), 「자이레」(Zaire), 「잠비아」(Zambia) 등 4個產銅國에 依해 結成되었다.」<sup>(17)</sup> 1975년에 CIPEC諸國은 東歐와 中國을 除外한 世界의 銅採鑛能力의 約 35%, 世界의 銅地金輸出量의 65% 및 世界의 銅스크랩(Scrap)과 銅地金의 合計輸出量의 45%를 占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諸國은 다른 開發途上의 鑛物生産國과 同一한 特徵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 即 이들 諸國의 鑛業은 그들의 國內消費가 極히 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生産量의 1~2%) 輸出指向型이다. 많은 開發途上國과 같이 이들 諸國은 그의 外貨收入, 歲入, 國民所得 및 經濟的 發展에 있어서 한가지 乃至 두가지 商品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이들 諸國의 鑛物資源은 極히 最近까지 國外에 追放된 經營者에 依해서 管理되어 왔으며, 또 이들 諸國은 모두 自國資源의 開發에 依해서 經濟的 利益을 增加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다.

OPEC와 같이 CIPEC도 主로 經濟的 諮問機關이다. 그의 目標은 CIPEC憲章 第2條에 定義되어 있다.

첫째 銅鑛業을 擴大함으로써 銅輸出에 依한 實質所得의 繼續的 成長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統合하고 또 그와 같은 所得에 對한 實際的인 豫測을 樹立하는 것.

둘째 銅의 生産과 마케팅에 관한 諸問題에 대해서 CIPEC의 決議와 加盟諸國의 政策과 의 調和를 促進하는 것.

셋째 加盟諸國에 銅의 生産과 마케팅에 관한 보다 좋고 完全한 情報과 適當한 助言을 提供하는 것.

넷째 消費國의 利益을 念頭에 두면서 生産國의 經濟的·社會的 發展을 위해서 資源의 增加를 圖謀하는 것.

이 機關은 그의 目標을 實質所得 即 인플레이를 調整하고 特히 增大하는 世界의 銅消費量과 兩立하는 所得의 持續的인 增大를 圖謀하는 것이라고 明確히 定義하고 있다. 同時에 銅의 生産과 마케팅에 관한 完全한 情報과 適當한 助言을 提供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고 價格의 極端的인 變動을 緩和하는 手段이나 方法에 關해서 重點的으로 行한다는 것이다.

CIPEC는 閣僚會議, 理事會, 執行委員會 및 情報事務局의 네 個의 機關으로 構成되어 있

(17) 大韓貿易振興公社刊, 「國際資源情勢와 우리 對策」 1976, p. 21 參考.

다. 閣僚會議가 最高의 權限을 가지나 이것은 一年에 적어도 2回 開催되는 OPEC會議와는 달리 2年에 1回의 通常의 會議가 開催된다. 勿論 보다 頻繁히 開催되는 OPEC의 閣僚會議가 協議의 習慣을 助成하고 協力을 보다 緊密化시키는 데 有利한 것은 確實하다. 그러나 CIPEC는 議題는 重要度の 輕重에 依해서 分類하며 重要議題에는 全員一致의 議決을 要하나 重要性이 낮은 議題는 單純한 多數決原則에 依하고 있다.

理事會는 各國 2名씩의 高官에 依해서 構成되고 있고 閣僚會議에 대해서 加盟諸國間의 技術的·行政的 協力을 促進할 責任을 진다. 그리고 年 1回 通常會議를 開催한다. (CIPEC委員會는 年 2回) 그 뿐만 아니라 各加盟國으로부터 적어도 1名씩의 代表를 낸다는 定足數가 定하여져 있다. 閣僚會議의 경우와 같이 重要度の 輕重에 對해서는 같은 分類에 따라서 議決가 行하여 진다.

執行委員會는 各加盟國으로부터의 各 1名씩의 代表者에 依해서 構成된다. 執行委員會는 理事會를 代身해서 行政的 및 財務的 事項에 對해서 事務局을 監督하고 豫算을 作成해서 理事會의 承認을 求할 뿐만 아니라 理事會에 對해서 其他 各種의 勸告를 行한다.

CIPEC에 있어서의 最高의 管理職位는 專務理事이다. 專務理事는 最初 2年間은 理事會의 全員一致의 議決에 依해서 任命되나 이 期間이 經過한 後에도 加盟 2個國의 要求가 없는 한 專務理事는 恒久的으로 地位가 維持된다. 專務理事의 任期가 限定되지 않는 것은 OPEC의 事務總長이 加盟國間의 輪番制로서 2年의 任期가 되어 있는 것과 對照的이다. 이와 같이 專門理事의 任期가 長期인 것은 專任理事가 運營計劃을 立案하고, 實行하는데 있어서 有利하기 때문이다.

CIPEC의 專務理事는 加盟國의 國民임을 要치 않는다. 事實 1967年으로부터 1975년까지는 加盟國의 國民이 아니었다. 專務理事는 實力에 立脚해서 選任되고 事務局을 監督하고 代表하며 閣僚會議 理事會 및 執行委員會의 事務局長으로서 行動한다. 發言할 權限은 있으나 議決權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理事會는 專務理事에 對해서 加盟諸國政府가 認定하는 以外에 技術 및 管理關係의 스태프(Staff)를 任命할 權限도 賦與되고 있다. 專務理事 또는 職員 如何한 者도 銅 또는 其他의 金屬에 對해서 如何한 經濟的 利害關係도 가져서는 안 된다.

加盟諸國政府는 只今까지도 銅의 世界市場價格을 維持하기 위한 會議를 數次 開催하였다. 價格變動을 除去하기 위해서는 CIPEC諸國은 緩衝在庫制度를 採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떤 業界側은 CIPEC諸國이 過去 備蓄에 依해서 銅價格을 維持하려는 計劃이 있다는 所聞을 흘린 적이 있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CIPEC諸國은 이 所聞이 提供한 心理的 價格上昇에 依해서 實로 500萬「파운드」의 큰 利益을 얻었다.」<sup>(18)</sup>고 이 業界側은 斷言하고 있다. 런던(London)金屬去來所의 Dealer들은 CIPEC 加盟諸國이 生産削減量의 算出基礎가 되는 生産 또는 販賣水準에 對해서 合意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안 以來 價格維持制度의 CIPEC의 能力에 對해서 一層 懷疑의으로 되었다.

OPEC諸國의 減産許容能力에 勇氣를 얻어서 CIPEC諸國도 1974末에 가서야 겨우 輸出量의 削減에 合意하였다. 그의 目的은 公開市場價格을 維持하려는데 있어서나 이들의 措置는 1975年이 되어서 不適當하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그 理由는 CIPEC諸國이 世界 採掘生産量의 約 35%를 支配함에 不過하다는 것, 世界不況 다음에 오는 商業在庫의 大量的인 蓄積, 緩衝在庫의 缺如 및 銅의 需要彈力性이 작은 것 등을 생각하면 이들의 措置가 不適當하였던 것의 主要要因은 削減量이 比較의 小量인 點이었다.

CIPEC諸國이 銅價格을 安定化시키는 데 直面한 하나의 主要한 困難은 備蓄在庫에 대한 金融「코스트」이다. 왜냐하면 國際錫協定의 生産國과는 달리 이들 諸國은 國際通貨基金의 緩衝在庫融資의 便益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讓與的인 金利로서 融資를 行하는 IMF는 援助對象을 商品協定에 限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CIPEC諸國은 緩衝在庫融資를 받을 資格은 없으나 IMF의 補償融資計劃의 適用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971~ 72년에 「칠레」(Chile), 「잠비아」(Zambia), 「페루」(Peru)는 各各 3,950萬弗, 1,900萬弗 및 3,075萬 SDR 相當을 外貨로서 購入하기 위해서 그의 便宜를 享受하였다.」<sup>(19)</sup>

CIPEC諸國은 IMF의 緩衝在庫融資를 받을 수 없으므로 世界銀行에 도움을 請하였으며 잠비아財務相은 1971年 11월에 當時의 異常低價格을 改善하기 위해서 過剩供給量의 一部를 銅備蓄을 장려하기 위해서 必要한 資金을 求하였다. 但 이것에는 이 備蓄銅은 價格이 매우 高水準에 達할 경우에는 價格을 引下하기 위해서도 使用된다고 하는 了解事項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世界銀行은 「잠비아」의 要請에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緩衝在庫融資問題外에 CIPEC諸國은 OPEC諸國과 같이 다른 諸問題에도 直面하였다. CIPEC諸國의 社會的 및 政治的인 諸條件과 諸目標 및 採掘狀況은 國家에 따라서 相異하다. 이와 같은 不一致는 集團行動을 不自由스럽게 만들기 쉬우며 協力하는 것이 그룹全體에 利益이 된다는 생각이 되는 경우에도 그룹의 加盟國이 받는 利益이 平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上述한 相異中에는 鑛業의 國家經濟에 對한 寄與의 程度의 差異 및 相對的인 生産「코스트」의 差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73年の 「칠레(Chile)와 「잠비아」(Zambia)의

(18) Metal Bulletin (London), May 28, 1971, p.17.

(19) IMF: International Financial News Survey. Dec. 15, 1971, p.409.

輸出收入의 80% 以上은 銅이었으나 「자이레」(Zaire)와 「페루」(Peru)는 各各 約 50, 30% 에 不過하였다. 「1969~ 70年間의 生産코스트는 「페루」가 最低이고 다음에 「칠레」, 「잠비아」, 「자이레」의 順序였다고 생각된다. 「칠레」의 生産코스트는 어떤 나라보다도 急激하게 上昇하고 1969年의 「파운드」(Pound)當 24.3「센트」로부터 70년에는 33.6「센트」로 71년에는 推定 40「센트」로 上昇하였다.」<sup>(20)</sup>

市場 및 個個의 加盟國內에서 逢着한 各種의 困難에도 不拘하고 CIPEC는 情報의 蒐集과 配布 및 諸研究의 準備에 있어서는 最大의 成功을 거두었다. CIPEC는 利益共同體에 對한 關心을 增大시키고 이것이 다시 團結을 強化시키기에 이르렀다. 그 뿐만 아니라 CIPEC諸國은 加盟國에 對해서 經濟的 또는 通商上의 侵略이 行하여 지는 경우에 對備하는 保護와 團結의 恒久的인 機構를 設立하는 것에 合意하였다.

CIPEC는 將次 OPEC와 같이 資源 Nationalism的인 色彩를 強하게 띠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短期的으로 CIPEC가 OPEC의 行動을 取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事實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첫째 CIPEC채어(Share)는 OPEC채어에 비해 아직도 低水準에 있으며 銅은 回收 및 代替가 可能하고 또한 OPEC와는 달리 會員國間 民族的 同質性이 缺如되어 있다.

둘째 CIPEC會員國中 既存멤버인 「페루」, 「칠레」, 「자이레」, 「잠비아」 등 4個國은 全體 外貨收入의 約 65%를 銅輸出에 依存하고 있어 銅輸出減少는 國家財政收支面에서 直接的인 壓迫要因으로 作用한다는 것이다. 國別銅輸出依存도는 「잠비아」 95%(1973年), 「자이레」 59%(1972年), 「칠레」 50%(1973年)이다.

세계 CIPEC가 銅時勢安定을 위해 取할 수 있는 措置로서 減産, 生産者價格設定, 輸出規制, LME買入支援, 緩衝基金設置 등이 있다. 이 中 減産이나 輸出規制는 價格安定에 가장 效果的이고 直接的인 手段인데 各國이 모두 自國의 雇傭增大와 所得增大에 진력하고 있는 現實을 감안할 때 非合理的이며 또한 濠洲의 加入으로 消費側立場을 代辯할 수 있는 契機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適正水準에서의 生産者價格設定은 設定價格水準維持를 위한 在庫管理上의 問題가 따라 最少限 緩衝基金設立이 前提되어야 하며 LME買入支援도 長期에 걸쳐 이를 行하는 데는 財力에 限界가 있다. 따라서 CIPEC는 決定的인 價格介入機能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要件이 아직 充足되지 못한 狀況下에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CIPEC는 強化된 市場채어를 背景으로 國際景氣의 上昇氣流에 隨伴되는 需要急增趨勢에

(20) Mining Journal Nov, 20, 1971, p. 476.

便乘하여 強力한 價格카르텔化할 可能性도 全然排除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sup>(21)</sup>

### 3. 鐵鑛石輸出國聯合(AIOEC: Association of Iron Ore Exporting Countries)

鐵鑛石輸出價 引上和 諸般相互利益保護를 目的으로 1974年 11月初 「주네브」에서 世界主要鐵鑛石輸出國들이 準備委員會를 發足시켰다. 同 모임의 參加國中 「알제리」(Algeria), 「볼리비아」(Bolivia), 「베네수엘라」(Venezuela), 「페루」(Peru), 印度, 「튀니지아」(Tunisia) 등은 急進의 強硬路線을 主張한 反面 濠洲, 「브라질」(Brazil), 「캐나다」(Canada), 「스웨덴」(Sweden), 「칠레」(Chile), 「필리핀」(Phillipines), 「모리타니아」(Mauritania) 등 主要輸出國들은 相互協力を 통한 漸進的인 目標達成을 主張하여 相互對立된 利害를 露呈하였다. 鐵鑛石輸出國中 濠洲, 「캐나다」, 「브라질」, 「스웨덴」(Sweden) 등 4個國은 大規模 鑛山開發로 國際的인 價格競爭力이 있으며 또 埋藏鐵鑛石도 比較的 高品位이므로 구태여 OPEC와 같은 價格統制의 카르텔化로 先進消費國과의 不和를 誘發할 必要가 없다는 理由로 AIOEC는 消費國도 包含한 對話機構로서 問題點의 討議 및 相互情報交換을 通하여 參加國 利益增進에 寄與토록 하게 되기를 希望하고 있다.

그러나 「알제리」 「페루」 印度 「베네수엘라」 등 急進의 그룹들은 自國生産 鐵鑛石의 品位가 낮고 持續的인 輸出增加도 어려워 國際的인 價格競爭力이 弱하여 앞으로 濠洲 「브라질」 등이 生産增加를 實現하여 鐵鑛石의 供給過剩이 誘發될 경우에 對備한 生産制限의 必要性 그리고 이들 國家들의 鐵鋼生産能力 不足으로 因한 輸入鐵鋼材 價格引上에 따른 負擔增加 등에 緣由하여 價格統制를 目的으로 하는 輸出國만의 統一的 單一機構가 될 것을 強力히 主張하고 있다. 이에 對해 消費國側은 價格 등 貿易去來上의 諸般問題는 民間「베이스」로 解決함이 마땅하고 政府主導型 價格引上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評價하고 있으며 同時에 巨額의 投資危險을 隨伴하는 鐵鑛山開發에 있어서는 產出國과 消費國이 共同運命體로서 對立이 아닌 相互對話關係를 維持함이 妥當하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이와 같은 諸般問題點이 提起되고 있으나 74年 7月 中旬頃에 「알제리」 「칠레」 印度 「베네수엘라」 및 「모리타니아」에 이어 濠洲가 加入키로 決定하였고, 最近 「페루」가 追加로 加入됨에 따라 鐵鑛石輸出國聯合(AIOEC)의 正式發足を 보게 되었다.

그런데 1975年 4月 「주네브」에서의 11個 生産國會議에서의 決定에 의하면 同聯合은 7個國의 正式調印에 따라 發足케 되어 있다. AIOEC가 正式發足됨에 따라 75年 10月 23~24 兩日間 英國 「런던」(London)에서 첫모임을 갖고 價格카르텔化 問題를 討議하였으나 具體的인 아무런 結論을 얻지 못한채 同問題는 다음해 次期會議로 延期되었다. 「브라질」 「시에

(21) 大韓貿易振興公社刊, 「國際資源情勢와 우리의 對策」 1975, p. 23-24.

라레온)(Sierra Leone), 「스웨덴」, 「튀니지아」 등이 同聯合加入에 關心을 表示하고 있으나 아직 正式調印하지는 않고 있다. 反面 消費國側은 同聯合結成에 對해 아직 具體的인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參加國間 意見對立이 存在하고 있지만 一般的으로 鐵鑛石의 價格카르텔化는 不可能한 것으로 認識되어지고 있다. 그 理由는

첫째 鐵鑛石은 石油와는 本質的으로 相異한 商品이다. 例로서 鐵鑛石은 世界 各國에 分散되어 埋藏되어 있고 賦存量이 豊富하여 가까운 將來에 枯渴될 憂慮가 없다.

둘째 「브라질」과 함께 始終 加入을 拒否해온 濠洲가 새로 加入하였지만 濠洲는 지금까지 固守하여 온 AIOEC의 非카르텔化 立場을 繼續 堅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加入與否와는 關係없이 獨自的인 政策을 追求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셋째 美國, 蘇聯 등이 世界最大生産國으로 存在하고 있어 加盟國의 世界生産中 占有率이 낮다.

넷째 프라스틱(Plastic), 古鐵 등을 代替品으로 利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諸般與件을 勘案해 볼 때 AIOEC가 價格카르텔의 性格을 가지는 國際機構로 成立되기는 어렵다고 一端 結論지을 수 있겠지만 現今의 動向과 關聯하여 生覺할때 AIOEC가 未來의 鐵鑛石의 國際去來에 至大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點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볼 수 있다.

#### 4. 보크사이트生産國機構(IBA: International Bauxite Association)

1974年 3月 「기니」(Guinea) 首都 「코나쿠리」(Conakry)에서 보크사이트(Bauxite)生産國 閣僚會議가 7個生産國이 參席한 가운데 開幕되어 보오크사이트의 生産國同盟結成 可能性에 관한 檢討가 이루어졌으며 1974年 11월에 濠洲, 「유고」(Yugoslavia), 「자마йка」(Jamaica), 「가이아나」(Guiana), 「가야나」(Ghana), 「하이티」(Haiti), 「도미니카」(Dominican Republic), 「수리남」(Surinam), 「시에라레온」(Sierra Leone), 「기니」(Guinea) 등 10個 會員國으로 發足되었다.

1974年 3월에 開催된 第1次 閣僚會議에서 보크사이트의 公示價格制導入 등 價格카르텔化에 濠洲가 反對함으로써 IBA(International Bauxite Association)는 當初 豫定했던 것보다 穩健한 機構가 되었다. 先進國인 濠洲는 世界 第1位의 보크사이트生産國으로 「IBA」에서 의 濠洲가 占하는 比重이 높은 位置에 있다. 그러나 國際大資本에 억눌려 있는 보크사이트 및 알미늄産業에 대한 「자마йка」(Jamaica)등 카리브海 沿岸諸國의 急進그룹의 反撥이 強化되어 이들 國家들은 獨自的으로 生産稅 「로얄티」(Royalty)引上, 輸出稅를 賦課하는 外에 外國資本에 對한 經營參加 擴大를 試圖 漸次로 對決姿勢를 굳히고 있다.

지난 74年 11月初旬에 Kingston에서 開催된 「IBA」閣僚會議에서는 1976年度 價格政策의 一環으로 最低價格水準 設定이 論議되었으나 現段階에서는 OPEC-Type의 價格카르텔 形成이 不適合하다는 結論에 到達하였다. 그러나 「IBA」는 價格카르텔 指向을 위한 研究檢討를 早速히 施行토록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當初 Kingston會議에서는 「IBA」10個 會員國이 指向할 1976年度 價格政策方向을 決定할 豫定이었으나 現今 世界的인 알미늄 需給減退와 그에 따른 보크사이트生産減縮現象을 감안 最低水準價格設定에 그쳤다. 一週日間に 걸친 同會議가 終了되기 前에 「인도네시아」가 新規會員國으로 加入하여 會員國數는 總 11個國으로 增加되었는데 그밖에 印度도 「IBA」에의 加入을 慎重히 考慮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BA」는 또한 最近 CIPEC와의 相互密接한 紐帶強化를 推進한다는 方針下에 CIPEC와의 合同會議開備를 提議하였다.

IBA와 CIPEC는 對象品目이 相異하나 보크사이트나 銅이 會員國의 外貨收入의 大宗品目으로 되어 있어 國家歲入上의 依存度가 커 不況에 따른 價格下落으로 難關에 逢着하고 있고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IBA는 11月中 Kingston 會議에서 보크사이트의 새로운 價格安定策(最低價格制)을 確立하는데 그쳤으며 CIPEC도 「리마」(Lima)會議結果 銅價格安定의 早急한 實現을 止揚키로 하여 兩그룹은 價格安定을 위한 獨斷의이고 果敢한 行動을 暫定的 이나마 一坦 保留한 狀態에 있다. 또한 濠洲 「인도네시아」(Indonesia) 兩그룹의 共通會員國이 되어 있다는 點 등이 結束推進의 契機가 되고 있다.

IBA는 一方的이고 大幅的인 價格引上과 出荷停止를 包含하는 OPEC式 立場을 追求하고 있는 反面 CIPEC는 「리마」會議를 轉換點으로 하여 緩衝在庫 實現時까지 消費國과의 對話를 통한 相互 協助體制維持를 追求하고 있어 現時點에서는 見解의 差異가 露呈되고 있다.

보크사이트는 IBA 11個 會員國이 世界生産의 80% 以上을 占하고 있고 埋藏量도 濠洲, 「가이아나」에 50% 以上이 分布되어 있어 IBA의 世界全體에 대한 舍어(Share)가 極히 높으며, 한편 歐美의 巨大國際알미늄資本이 自由世界 알미늄 生産能力의 約 60%를 占하고 있음이 特徵으로 되어 있다. IBA는 今年度 모임에서 世界的인 景氣後退現象에 따라 多分히 戰略的이고 一時的인 穩健化政策을 採擇하였으나 諸資源機構中 카르텔化할 可能性이 尙 높은 性格을 지니고 있어 멀지 않은 將來에 本格的인 價格統制努力을 行使할 것으로 展 望된다.

##### 5. 硫黃輸出會社(Sulexco: Sulphur Export Corporation)

硫黃의 價格水準의 變動 乃至 惡化는 輸出國政府와 超國籍企業의 雙方에 있어서 從來로 부터 重大한 關心事가 되어 왔다. 이것은 各各의 그룹(Group)間的 共同行動에 拍車를 加하

고 또 企業의 比較的 高度의 集中化에 依해서 促進되고 있다.

1950年代의 初期에 있어서는 美國의 4개의 企業이 世界市場을 支配하고 있었다. 그중 2個社는 大會社인 「후리보드·셀휘」와 「텍서스·걸프·셀휘」이고 다른 2個社는 이들 2個社보다 작은 會社인 「듀발·텍서스·셀휘」와 「제퍼슨·레이 그·오일」이었다. 1950년에는 이들 美國企業은 世界硫黃貿易의 94%를 支配하고 있었으며 나머지의 6%를 「노르웨이」(Norway)의 生産業者들이 支配하고 있었다.

美國의 立法은 國內市場에서의 去來의 制限을 禁止하고 있으나 1918年の 웰·포메링法은 輸出貿易에 있어서는 生産割當과 市場配分の 設定, 價格決定 및 카르텔協定違反의 罰則을 包含한 카르텔結成을 許容하고 있다. 이 法律에 따라서 美國의 2大生産業者인 「후리보드·셀휘」와 「텍서스·걸프·셀휘」는 1922年 Sulphur Export Corporation, Sulexco를 設立하였다. 그런데 「듀발·텍서스·셀휘」가 1928년에 또 「제퍼슨·레이크·오일」이 1932년에 各各生産을 始作하자마자 Sulexco는 이들 두 新參會社와 協定을 締結하였다. 1933年 Sulexco는 輸出카르텔을 結成하고 輸出量, 市場割當 및 價格의 決定을 規制하였다. 그런데 그 當時 不足하였던 供給量의 割當을 통해서 美國政府가 輸出統制를 實施하였기 때문에 1952年 Sulexco의 所有者들은 Sulexco를 解散하였다. 이와 같은 條件下에 있어서는 Sulexco의 輸出統制는 不必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供給源의 發見이나 美國以外的 國家에 있어서는 새로운 供給業者의 出現 및 그것에 隨伴하여 1956年으로부터 始作한 激甚한 價格競爭때문에 美國의 生産業者들은 1958년에 以下에 列擧하는 各社의 出資參加를 얻어서 Sulexco를 再建할 것을 決定하였다. 即 「텍서스·걸프·셀휘」(出資比率 37%) 「후리보드·셀휘」(同 37%), 「제퍼슨·레이크·오일」(同 18%) 및 「듀발·셀휘」(同 8%)이다. 그러나 Sulexco의 再建은 價格維持面에서 效果가 없음이 實證되었다. 그것은 주로 大量의 供給量을 가진 美國以外的 新參企業이 市場의 販賣를 強力히 要求하는 것이 原因이었으며 美國 輸出業者의 價格은 1958年の 런던·톤(London Ton)當 30弗로부터 1963년에는 21弗로 低下하였다.

특히 1963年 以後에는 世界의 消費伸長은 生産量의 伸長을 上廻하여 價格은 上昇하기 始作하였다. 그것은 生産能力의 擴張이 1956~63年間に 價格下落에 따라서 이미 減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不足이 發生하고 美國의 輸出價格은 1964年の 런던·톤(London Ton)當 22弗의 低水準으로부터 1968년에는 런던·톤(London Ton)當 40.14弗로 上昇하였다. 이 價格은 새로운 生産을 促進하고 또 이것은 過剩生産을 招來하게 되었다. 今後 美國의 輸出價格은 다시 下降하기 始作하여 1972年 5月에는 런던·톤當 17.5弗에 達

하게 되었다.

「캐나다」(Canada)는 1971년에는 世界最大의 硫黃輸出國이었다. 「캐나다輸出量은 1968年の 211萬%에서 1970년에는 299萬%으로 上昇하였으나 輸出受取額은 7,640萬캐나다弗로부터 4,280萬 캐나다弗로 低下하였다. 이것은 價格이 屯當 36.2캐나다弗로부터 屯當 14.3캐나다弗로 下落한 것을 反映한 것이다.」<sup>(22)</sup>

世界の 硫黃市場은 當時 各種의 生産技術을 使用하는 供給源의 數의 增加뿐만 아니라 企業數의 增加에도 直面하고 있었다. 民間 및 國有의 企業은 大量의 새로운 硫黃供給量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의 大部分은 石油나 天然가스로부터 回收한 硫黃이었다.

民間企業이나 國有企業도 1971년에는 硫黃價格의 低下를 念慮하게 되었다. 國有 또는 國家管理下의 硫黃生産企業의 任員은 1971년에는 幅넓게 各方面과 協議하였다. 佛蘭西의 SNPA의 代表者인 샤리베리아氏は 「이란」 「이라크」 및 「쿠웨이트」의 相對方企業과 協議하였다. 同時에 「캐나다」의 알버타州當局은 價格의 安定化를 目的으로 하는 強制的인 在庫管理規定을 導入하고 1972年 1月 1日로부터 實施한다고 發表하였다. 「폴란드」(Poland)는 價格安定化의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지킬 意思를 表明하였으나 SNPA도 同一意思를 表示하였다. 「멕시코」는 價格引上을 包含한 輸出統制計劃의 윤곽을 作成하였으며 이들의 生産者들은 1972년에 對해서 룻넬담을 基準地點으로 하여 固形硫黃은 屯當 約 28弗 液狀硫黃은 屯當 30弗의 最低價格水準이 所望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努力을 다시 推進시키기 위해서 硫黃輸出各國(특히 「캐나다」 佛蘭西, 「멕시코」, 「폴란드」)의 代表團은 國際協定の 締結을 目的으로 하여 1971年の 6月과 11月に 몬트리올에서 會議을 開催하였으나 알버타州政府는 1971年 11月 下旬 在庫管理計劃을 斷念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Sulexco는 「캐나다」 「쿠바」 및 「멕시코」를 除外한 全輸出國을 包含한 國際카르텔의 結成에 成功하였다.

1970年 中葉頃에는 採掘硫黃은 石炭과 石油로부터 回收된 硫黃과의 사이에 價格競爭이 激化되고 工業國에 있어서 一層 嚴格한 大氣汚染防止法의 實施에 依해서 再生硫黃의 供給量은 增加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狀況은 價格安定을 위해서는 좋은 徵兆는 아니다.

#### 6. 國際朱錫理事會(ITC: International Tin Council)

錫의 경우는 第2次 世界大戰以後 一貫해서 生産國과 消費國間에 國際商品協定이 維持되어 價格 및 在庫調整이 이루어지고 있다. 同商品協定은 1947년에 錫의 世界需給關係 調査 및 生産, 消費, 貿易에 관한 研究를 爲해 國際錫理事會가 設立되고 이것을 基盤으로 해서

(22) U.S. Bureau of Mines: Mineral Trade Notes, Feb. 1972, p. 21.

1956年 7월에 同協定이 發效되었다.

그리고 「스위스」(Switzerland)의 주네브에서 열린 UN朱錫會議에서 第5次朱錫協定이 締結되었는데 同協會는 1976年 7月 1일부터 5年동안 施行될 豫定이었다. 그 主要內容을 보면 첫째 緩衝在庫 財源으로 生産國은 2萬屯 相當의 出資義務를 負擔하며 消費國도 同一規模로 出資토록 권장키로 明文化하였다. 둘째 其他 緩衝在庫 財源으로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借款을 積極模索토록 ITC에 要求키로 하였다. 셋째 ITC는 모든 會期에 錫價格의 適正如否를 再檢討키로 하며 朱錫需要가 供給을 超過할 時에는 ITC參與消費國에 優先的으로 供給키로 하였다.

錫生産國의 資源카르텔化 可能性은 희박하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그 理由는 世界 生産의 3分の 1을 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Malaysia)産 錫의 경우 Straits Trading과 Eastern Smelters 등 2大 英國系 資本에 獨占되어 있고 國際錫協定이 比較的 價格維持에 成功的이었다는 點 그리고 錫은 다른 非鐵金屬에 比해 需要增加가 極端的으로 작으며 알루미늄, 에폭시, 樹脂 등의 代替物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錫은 「말레이시아」 南美 등에 偏在하는 資源으로 「인도네시아」(Indonesia)를 除外한 거의 大部分의 生産國이 非産油國으로 1973年 油·쇼크(Oil Shock)로 크게 刺戟되어 國際錫時勢維持努力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다.

#### 7. 重石生産者聯合(PTA: Primary Tungsten Association)

世界主要重石生産國들은 1975年 4月 「볼리비아」(Bolivia)의 首都 라파스(Lapas)에서 會議을 열고 카르텔에 가까운 形態의 生産者機構를 創設하는데 合意하였다. 「볼리비아」, 「페루」, 「포르투갈」(Portugal), 泰國이 結成 멤버이며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中共 등도 옵서버로 參席하였다. 한편 유엔開發會議(UNCTAD)傘下의 重石委員會가 1965년에 始作되어 1975年 7月末까지 9次會議을 가졌다. 1975年 7月末 주네브會議에서는 國際需給安定을 위해 重石鑛의 Floor Price 設定과 國際備蓄機構의 創設 등을 具體化시킬 方針을 決定, 同委員會內에 作業委員會를 設置하여 1976年初부터 細部事項을 檢討키로 하였다.

同機構의 本格的인 機能發揮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좀더 時間이 所要될 것으로 보이나 重石의 國際的인 協助體制成立으로는 最初의 것으로 劃期的인 意義를 지니고 있다. 同委員會의 具體的인 討議內容은 將來 重石鑛의 國際價格協定과 需給安定目的을 위한 備蓄機關의 創設, 最高, 最低, 中間帶 價格水準設定 및 生産, 輸出, 在庫面에서의 統一基準에 依한 目標設定 등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將來에 對備, 具體的인 協定實現에 이르는 細部的인 方法, 資金制度運用을 둘러싼 諸問題는 1976年 1月初 개최예정인 作業委員會에서 檢討하여 生産 및 消費國間의 意見調整을 위한 作業에 着手할 것으로 보인다. 同委員會에서



는 또한 25個消費國이 生産者들의 價格規制案에 대해 強力히 反對하는 움직임을 보인 反面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中共이 生産者들의 立場을 強力히 支持하고 나섬으로써 注目을 끌었다. 重石의 國際時勢가 UNCTAD重石委員會와 重石生産者聯合의 價格安定을 위한 一聯의 努力 結果 安定水準達成에 成功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否定的인 要素도 相當히 內在하고 있는데 그 主要論據를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價格의 上下限線規制는 緩衝在庫나 輸出入統制 또는 生産減縮과 같은 適切한 措置가 先行되지 않는 限 不可能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PTA(Primary Tungsten Association)는 이들 中 어떤 方法을 選擇할 것인가에 대해 未決狀態에 놓여 있다. 또한 이를 諸般措置에는 財源確保問題가 必然的으로 附隨되는 바 所要財源을 生産者들이 自進負擔하는 것은 實現可能性이 없다. ITA國際朱錫協定の 경우에는 生産者들이 스스로 財源을 調達해 왔으며 近來 提起된 消費者負擔原則도 非公式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ITA는 緩衝在庫를 中心으로 錫價格을 統制하고 있으며 이 方法이 價格不安定化를 防止하는 途徑으로 理解되고 있다. 그러나 PTA의 경우에는 構成國家의 政治經濟 및 地域的인 差異가 廣範圍하게 存在하므로 ITA와 같은 緩衝在庫를 設立함에는 어려움이 隨伴된다. 또한 緩衝在庫가 設立된 경우에도 管理人選任問題, 運用問題 등이 解決되어야 하며 自由市場機能을 制御하기 위한 販賣機構도 設立해야 한다. 둘째로 重石은 錫과는 달리 標準品位의 決定이 어렵다. ITA의 標準品位設定은 低品位鑛 生産者들의 反撥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點들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鼓舞的인 面도 없지 않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只今까지 微溫的인 態度를 보여오던 中共이 주네브UNCTAD重石會議에서 生産者들의 立場을 強力히 支持하고 나섰는데 中共은 現在 世界的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生産國으로 다만 政治的 理由로 PTA에의 參與를 拒否하여 왔다.

實際로 中共의 參與없는 國際協定으로는 蘇聯을 包含하는 UNCTAD重石消費國들의 同意를 얻기가 不可能하다. 따라서 中共의 積極的인 姿勢는 生産者들의 價格安定化努力에 直接的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近來에 PTA會員國으로 「브라질」이 參加한 外에 「자이레」(Zaire), 「우간다」(Uganda) 등이 새로 加入하였다. 一聯의 生産者價格保障努力에 따른 現今의 重石價格安定趨勢는 根本的인 不安定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PTA自體도 價格安定을 위한 具體案이 現實化되는 데에는 最少限 2年程度의 時間이 所要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 8. 우라늄協會(UI: Uranium Institute)

1970年代 初期에는 價格惡化를 防止하기 위한 個個의 活動에는 限界가 있다는 것을

Uranium生産諸國이 明白히 알 수 있었다. 先進國中 濠洲와 「카나다」는 共同行動의 利益을 實現하였다. 이 兩國은 1971년에 Uranium을 包含한 鑛物에 있어서의 政策協力の 第1步로서 兩國政府高官 사이에 繼續 對話를 實施할 것에 合意하였으며 「1971년에 濠洲의 캔베라(Canberra)에서 「카나다」의 에너지鑛物資源相은 Uranium의 世界供給價格을 파운드當約 6弗로 定할 것을 提唱하였다. 그러나 濠洲의 Uranium은 매우 埋藏量이 豊富하므로 1971년에는 酸化 Uranium 1파운드當 3弗로 有利하게 採掘할 수 있었을 것이며 어떤 側의 見解에 依하면 1파운드當 1弗로서 均衡이 取하여 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主張하였다.」<sup>(23)</sup> 카나다 및 其他의 Uranium輸出國이 濠洲와의 協力を 強力히 要望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理由에 起因하는 것이다.

「濠洲에 있어서의 Uranium 輸出契約은 政府가 妥當한 基礎價格이라고 生覺하는 價格條件外 에스케레이션條項(Escalation Clause) 및 後日의 再交渉條項을 包含한 것이 아니면 없었으며 1972年 8月 24일에 認可된 諸契約 總額은 4,400萬濠洲弗에 達하고 酸化 Uranium 1파운드當 價格은 大體로 6.57濠洲弗이 되었다. 公式聲明도 濠洲政府는 모든 다른 Uranium 輸出國政府와 같이 輸出統制制度를 維持할 것을 決定하였다는 것을 認定했다. 이 公式聲明은 또 當分間 統制는 價格단에 限定되는 것이며 이 制度는 現在 輸出業者에 對한 如何한 量的規制도 包含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sup>(24)</sup>

그 結果 濠洲, 「카나다」, 佛蘭西, 南亞弗利加 및 英國에서 生産을 영위하고 있는 Uranium 企業은 1972年 5月 29~30일에 요하니스버그(Johannisberger)에서 開催된 會議에서 이들 諸國의 價格政策을 調整하는 것에 合意하였다. 그들의 最初의 決定은 1980년까지를 有效期間으로 하여 酸化 Uranium을 1파운드當 6.57濠洲弗의 最低輸出價格을 定하는데 있었다. 1975年 4월에 그들은 Uranium 協會(Uranium Institute)라고 알려져 있는 價格調整을 위한 恒久的 組織을 設置하였다. 여기에는 16個企業이 參加하였으며 美國政府와 美國 Uranium 生産者는 直接的으로는 요하스니버그會議에 參加하지 않았으나 1972년에 美國政府 代辦人이 美國以外의 國家에서 生産되는 Uranium의 價格引上은 그것이 美國의 輸出展望을 改善하는 限에 있어서 贊成이라고 말하였다고 傳하여 지고 있다.

美國政府는 또 다른 手段에 依한 生産業者의 協力에도 贊意를 表하였다. 核武器의 擴散을 防止하고 世界平和를 促進한다는 것을 表面上의 目的으로 해서 美國大統領은 1975年 7月 런던에서 主要 核輸出國의 美國, 英國, 西獨, 「카나다」, 蘇聯의 代表者 以外에 日本으로부터

(23) Mining Journal, Aug. 6, 1971, p.113.

(24) Australian Financial Review (Sydney), Aug. 25, 1972, p.1.

터는 Observer를 초빙하였다. 그러나 中立的 側에 依하면 美國政府는 또 「商業的 濃縮 및 再處理市場에 對한 核輸出國그룹의 獨占에 가까운 狀態 및 이 市場에 있어서 支配的地位를 強化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參加諸國은 現在 하나의 에너지·카르텔(Energy Cartel)을 結成한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sup>(25)</sup>고 이 側은 부연하고 있다. 요하니스버그·그룹과 런던·그룹의 어떤 것에도 加入하고 있지 않는 國家는 「브라질」, 中國 및 印度 등 極히 少數이다.

Uranium產業의 需要彈力性은 매우 낮은 것 같다. 酸化 Uranium의 價格이 예를들면 10% 上昇하여도 原子力發電所의 電力生産코스트에는 微微한 影響을 미치는 데 불과하며 이는 코스트에서 占하는 決定的인 要素가 燃料가 아니고 設備投資이기 때문이다.

#### 9. 天然고무生産國聯合(ANRPC: Association of Natural Rubber Producing Countries)

「말레이시아」(Malaysia), 泰國, 「인도네시아」(Indonesia), 「싱가포르」(Singapore), 「스리랑카」(Srilanka), 南베트남(South Viet-Nam)등 7個生産國들이 1970년에 結成하였다. 當初에는 不況打開策을 위한 共販카르텔의 性格이 強하였으나 漸次 有利한 價格條件의 確保, 契約條件의 優位 등을 目的으로 하게 되었으며 한편 泰國,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個國은 天然고무의 單一流通機構를 創設하기 위해서 非公式的으로 論議를 繼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各生産國들도 天然고무를 粗雜한 狀態로 輸出하던 것을 止揚하고 加工度を 높여 輸出함으로써 收益의 增大를 꾀하려 하고 있다. 「ANRPC加盟國(南베트남 代表는 不參加)은 1975年 5月初에 1975年의 輸出量을 28萬屯을 減少시켜 381萬 3,000屯으로 할 것에 合意하였다. 이 減少는 當初規模 10萬屯의 國際고무備蓄을 設定하는 한편 加盟諸國이 國內備蓄 乃至 生産削減에 依해서 나머지 28萬屯을 吸收하려고 하였다.」<sup>(26)</sup>

#### 10. 原木輸出國機構(OLEC: Organization of Lumber Exporting Countries)

現在 原木에 對한 公式的인 國際機構는 設立되고 있지 않으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東南亞 主要生産國들은 自國의 林産資源을 保護하고 無節制한 原木輸出을 規制하기 위하여 原木輸出國機構(Organization of Lumber Exporting Countries)의 設置을 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各國이 取하고 있는 資源 Nationalism의 特徵을 보면 原木을 그대로 輸出하는 것을 規制하고 製材한 것 또는 合板 등으로 加工을 한 形態의 것으로 輸出하는데 漸次 힘을 기울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는 原木輸出을 規制하는 代身 海外企業의 新規進出에 있어서는 製材工場 合板工場 建設을 條件으로 許

(25) P. Lemis: "Uranium Enrichment: Bid for a Big Market", Financial Times, July 17, 1975, p. 4.

(26) IMF: IMF Survey, Feb. 3, 1975, p. 43.

可하고 있다.

#### 11. 바나나輸出國同盟(UPEB: Unión de Países Exportadores del Banano)

OPEC型的 生産國聯合은 鑛物만에 限하지 않고 農産物生産國도 自國의 輸出收入의 惡化에 對處하기 위해서 OPEC方式을 模倣할 것을 試圖하였다.

그의 一例가 UPEB 即 바나나輸出國同盟(Unión de Países Exportadores del Banano)이다. 이 UPEB는 1974年 3月 「파나마」에서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에쿠아돌」(Ecuador), 「과테말라」(Guatemala), 「혼두라스」(Honduras), 「니카라과」(Nicaragua) 및 「파나마」(Panama)의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 7個國에 依해서 設立되었다. UPEB創設加盟國은 1973년에는 4億弗에 達하는 世界의 바나나輸出의 約 3分の 2를 占하고 있었다.

「UPEB諸國의 바나나生産은 美國의 3大企業에 依해서 支配되고 있다. 그 中 最大의 2個 會社는 「유나이티드·부란즈」(United Brands)와 「스탠다드·후르프」(Standard Fruits)社이고 「델·몬드」(Del Monte)社가 이에 따르고 있다. 1973년에는 이들 超國籍企業은 世界의 바나나 貿易總額의 約 70%(各各 35%, 25% 및 10%)를 占하였다. 이들 企業의 行動은 各時期를 통해서 貿易을 抑制하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看做된다.<sup>(27)</sup>

바나나輸出國은 모두 開發途上國이고 그 中 數個國은 雇傭, 國民所得 및 外貨面에서 바나나에 强하게 依存하고 있다. UNCTAD의 研究에 依하면 1950年 以後의 바나나小賣價格의 實質의 低下는 先進國의 消費者에 利益을 賦與하고 코스트를 低下시키기 위한 革新의 利益을 輸出國으로부터 박탈하였고 一部の 바나나輸出國은 上昇하는 코스트에 對處하고 또 輸出量을 維持하기 위해서 栽培業者에 對해서 補助金을 提供하지 않으면 不되었다. UNCTAD 事務局은 過去 10年間에 걸쳐서 바나나를 生産하는 開發途上國으로부터 先進國으로 實際의 資源移轉이 行하여져 왔다고 結論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UNCTAD가 世界的으로 把握한 推計에 依하면 1971년에 있어서 最終小賣價格에서 占하는 生産國栽培者의 웨어(Share)는 11.5%이었는데 對해서 外國企業의 마진(Margin)總計는 88.5%이었다. 生産輸出國의 輸出稅는 小賣單價의 0.8%이었는데 對하여 輸入先進國이 賦課하는 輸入關稅는 平均 6.9%, 即 輸出稅의 8배에 達하고 있었다.

1974年 初葉 UPEB加盟國은 1974年 4月 15日로부터 1파운드當 最高 2.5센트의 輸出稅를 課할 것에 合意하였다. 어떤 會社任員이 認定하고 있는 것과 같이 價格引上은 지나치게 低

(27) UNCTAD Secretariat: The Marketing and Distribution System for Banana, Dec. 24, 1974, p. 13.

廉하였던 價格이 20年間 長期間 繼續된 後 實施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狀況이었음에도 不拘하고 美國企業은 生産國에 對해서 價格引上에 抵抗하였으나 消費國에 對해서는 何等의 行動도 取하지 않았다. 좀 더 明確하게 말하면 「Standard Fruits」는 「혼두라스」에 對해서 不買運動을 하고 「United Brands」는 「파나마」에 對해서 不買運動을 行하였다. 「어떤 中美의 共和國에서는 1974年の 5~6월에 걸쳐서 어떤 큰 超國籍企業이 輸出稅에 反對하였다는 理由로서 每週 14 5,000萬箱子の 바나나를 버렸다.」<sup>(28)</sup>

「Standard Fruits」와 「United Brands」兩社의 強硬한 態度는 UPEB加盟國間的 結束을 緊密化시키는데 貢獻하였으나 窮極의으로는 企業側이 優勢하였다. 超國籍企業은 策略을 使用하여 UPEB戰線의 弱體化를 圖謀하였기 때문이다.

1974年 7월에 開催된 UPEB의 會議에서 「파나마」商工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tandard Fruits」의 副社長은 同社가 輸出에 對한 如何한 稅金도 認定하는 것을 拒否하였다고 發表하였다. 萬一 「혼두라스」와 「코스타리카」가 輸出稅의 徵收를 固執한다면 「Standard Fruits」는 이들 兩國에 있는 自社의 農場 및 國內生産者의 農場으로부터의 輸入을 禁止하겠다고 主張하고 이를 實行에 옮겼다고 말하고 있다. 1974年 年末까지에는 「코스타리카」는 輸出稅를 40「파운드」들이 箱子當 25「센트」를 引下하고 「혼두라스」는 30「센트」, 「파나마」는 35「센트」 引下하였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바나나輸出의 30%를 占하고 있는 「에쿠아돌」은 輸出稅의 徵收에 對해서 同調하는 것을 拒否하여 結局 UPEB로부터 脫退하고 또 「니카라구아」도 同一하게 脫退하였다.

美國의 超國籍企業은 UPEB의 價格引上에 對해서 主로 購買量을 減少하는 方法을 使用하거나 또 한편에서는 그들이 協力하여 만들어진 不足狀態를 통해서 最終消費者價格을 引上하는 方法을 통해서 低抗하여 왔다. 따라서 그들은 不當 利得者로서 非難받기에 이르렀다. 特히 그들의 利益마진이 UPEB創設以前의 1箱子當 20「센트」로부터 創設後 얼마 안되어 1箱子當 70「센트」로 3倍以上 增加한 點 때문에 非難을 받았다.

以上과 같이 UPEB의 영향력이 弱한 것은 各種의 要因에 立脚한다. 特히 顯著한 것은 美國에 本據를 둔 巨大한 三大 超國籍企業의 少數購買獨占的인 영향, 世界市場의 大部分의 販路를 制壓하고 있는 이들 企業의 垂直統合, 石油와 같은 다른 商品에 比해서 바나나가 없어도 되는 性質, 라틴 아메리카內外에 걸치는 바나나輸出國으로부터의 效果的인 支持 또는 參加가 없는 것, 코스트와 價格間的 構造 및 바나나의 生産과 輸出에 영향을 미치는 立法的·行政的 措置에 관한 適切한 情報의 缺如, 訓練과 研究를 위한 設備가 存在하지 않는

(28) UNCTAD Secretariat: Marketing and Distribution for Bananas, 1974, p. 26.

것, UPEB一部 加盟國에 보여지는 經濟的·政治的 從屬性 乃至 脆弱性, 有效한 調整이나 結束을 推進시키는 範圍가 좁은 것 및 實際問題로서는 主要消費市場에 對한 하나의 出荷地의 地理的 位置를 度外視하고 同一의 輸出稅率을 適用하는 것의 困難性 등이다.

#### 12. 濠洲羊毛會社(AWC: Australian Wool Corporation)

羊毛은 現在 國際市場에서 가장 價格變動이 심한 商品中의 하나이다. 따라서 世界最大產毛國인 濠洲는 AWC(Australian Wool Corporation)을 設立하여 輸出用羊毛價格이 低價일 때 買入하고 高價일 때 放出하는 方式을 취하여 自國의 收入增大를 피하고 있으며 第3位 產毛國인 「뉴질랜드」 및 第5位인 南아프리카도 AWC와 類似한 機構를 發足시켜 運營하고 있다.

#### 13. 커피生産國機構

1973年 4月 9日 「코스타리카」(Costa Rica)는 커피 價格의 引上을 위한 커피生産國機構를 創設하자고 提唱하였으며 「파나마」(Panama), 「에쿠아돌」(Ecuador), 「콜롬비아」(Colombia) 「베네수엘라」(Venezuela), 「브라질」(Brazil) 등 生産國들도 이에 同調하고 있어 不遠間 同機構가 正式으로 設立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커피生産國들도 차츰 資源Nationalism 傾向을 強化해 가고 있다.

#### 14. 其他의 輸出國聯合

生産國聯合方式은 또 다른 原料生産諸國에 있어서도 그들의 새로운 經濟秩序를 위한 機會라고 보고 있다. 磷酸鹽의 生産國은 에너지危機, OPEC가 實施한 價格引上 및 이것에 隨伴하는 石油化學製品의 價格上昇을 利用해서 큰 成功을 거두었다. 事實 磷鑛의 最大輸出國 「모로코」(Morocco)의 指導下에 그 뿐만 아니라 그의 首都에서의 數次에 걸치는 合議後 「모로코」, 「튀니지아」(Tunisia), 「세네갈」(Senegal), 「스페니쉬·사하라」(Spanish Sahara), 「알제리아」(Algeria) 및 南아메리카의 磷鑛生産者들은 價格을 3倍 引上하기 위해서 共同으로 行動하였다. 그들은 또 國內磷鑛業의 國家支配를 要求하였다. 이 方法에 따라서 「도고」(Togo)는 1974年初에 美國의 W.R. 그레이스社가 經營하고 있었던 同國 最大의 磷鑛採掘事業會社의 100% 接受를 斷行하였다.

世界最大의 水銀生産國 「스페인」(Spain)의 指導下에 이 金屬의 主要生産國(「스페인」, 「이탈리아」, 「멕시코」, 「알제리아」, 「유고슬라비아」, 「터키」 및 「캐나다」)도 클럽을 結成하였다. 이들 諸國은 數次에 걸친 會議을 열고 1973~74년에는 生産國聯合 및 全般의 價格政策에 對해서 合意하였다. 水銀生産國은 公害防止의 見地로 인해 汚染의 우려성이 없는 隔膜法이 採用되기 때문에 水銀의 主要用途(鹽素生産)의 需要가 減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염

려하고 있다. 生産國은 一般的으로 水銀이 아직 市場性이 있는 동안에 利潤을 最大限 높이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 IV. 資源 Nationalism의 展望

資源保有國들이 資源 Nationalism을 強力히 追求하게 되면 어떠한 現象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로 資源保有國이 資源 Nationalism을 強化하게 되면 各國이 資源獲得을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되어 國際政治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即 開發途上國들이 資源을 戰略物資로 看做하고 이것을 政治의 交涉에 利用하게 되면 資源의 他國依存도가 낮은 國家 即 美國, 蘇聯, 中共 등은 優勢해 지고 他國依存도가 높은 西國諸國 및 日本 등은 相對的으로 不利한 立場에 서게 될 것이다.

둘째로 資源 Nationalism의 強化는 國際自由貿易을 阻害하게 될 것이다. 先進國들이 高價의 資源輸入으로 國際收支가 惡化되면 貿易規制를 強化할 것이며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的 政策은 相對國의 抵抗을 招來하게 될 危險이 있다.

셋째로 開發途上國들도 더욱 困境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即 開發途上國들은 그들대로 國際收支가 더욱 惡化될 것이다. 왜냐하면 先進國들이 國際收支가 惡化되면 開發途上國에 對한 經濟援助나 資本投資를 減縮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國際政治 經濟에 이와 같이 至大한 영향을 미치게 될 資源 Nationalism은 果然 얼마나 強力히 그리고 長期間 繼續될 것인가.

아랍諸國이 石油價格을 3倍以上 引上시킬 수 있었고 이에 對해 消費國들이 束手無策이 됨에 따라 石油의 資源 Nationalism은 크게 成功을 거두었다. 이는 다른 主要原資材를 生産하는 國家들에게도 波及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資源 Nationalism이 石油와 같이 成功을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事實들이 前提되어야 한다는 것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첫째 該當資源이 몇몇 國家에게만 偏在되어 있어 그들의 供給增減이 世界市場에 莫大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各產業分野에 必要不可缺한 資源이어야 한다.

셋째 代替資源의 開發이 不可能하든지 아니면 代替을 위해서는 높은 코스트를 要하는 資源이어야 한다.

넷째 資源保有國들은 自國의 經濟成長을 達成하는데 資源輸出에 크게 依存하지 않아도 될 程度로 富國이어야 한다.

資源 Nationalism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以上과 같이 條件이 前提되어야 한다. 現在 世界資源中 石油처럼 이러한 條件을 갖추고 있는 資源은 別로 없는 것 같다.

即 몇개 資源은 一部地域에 偏在되어 있기는 하지만 大部分의 資源은 世界的으로 넓게 散在되어 있으며 資源 Nationalism을 行使하려는 大部分의 國家들이 아직도 貧困의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代替資源의 開發이 活潑히 推進되고 있으며 또 그 可能性이 매우 크다. 例를 들면 보크사이트의 경우 알미늄原料로서 粘土, 貝岩, 石炭 등을 使用할 수 있으며 朱錫은 Stainless, Plastic 製品으로 代替가 可能하고 銅의 경우도 代替品의 利用이 可能하다. 天然고무의 경우에도 合成고무의 競爭이 있게 된다.

勿論 開發途上에 있는 資源保有國들은 그들의 資源 Nationalism을 꾸준히 追求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現在 世界의 資源狀況으로 볼 때 資源 Nationalism은 一般的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深刻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石油의 경우와 같이 成功을 거둘 可能性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 參 考 文 獻

- 大韓貿易振興公社刊, 國際資源情勢와 우리의 對策, 1975.  
 日本經濟新聞社編, 資源 100問 100答, 1978.  
 A.A. Kubbah: OPEC, 1974.  
 B. Abdessalam: Arab Oil and Gas, 1974.  
 D.R. Bohi & M. Russell: U.S. Energy Policy, 1975.  
 F. Rouhami: A History of OPEC, 1971.  
 IMF: International Financial News Survey, 1971.  
 IMF: IMF Survey, 1975.  
 OAPEC: A Brief Report o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 of the Organization, 1968~1973, 1974.  
 OPEC: Weekly Bulletin Review of the Press, Jan, 5, 1973.  
 R. Maulding: A View from the Middle East, 1973.  
 UNCTAD Secretariat: The Marketing and Distribution System for Banana, 1974.  
 U.S. Bureau of Mines: Mineral Trade Notes, 1972.  
 Z. Mikdashi: The Community of Oil Exporting Countries, 1972.